

스스로를 위한 나눔과 봉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국대학교 의료원보 동행(同行)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료포교의 중심도량 종립 동국대학교 의료원의 화합과 즐거움을 이루고, 고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위로하는 향기로운 동행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화합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교직원 여러분과 고객들이 소식지의 이름처럼 동행(同行)의 지혜로움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정성을 다하며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달려오신 교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호 뜻 그대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동행’이 되어, 지금 딛고 선 이 자리를 바로 보고 새롭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의료문화의 참된 소식뿐 아니라 구성원들과 고객들의 삶이 함께 하고 교직원과 고객, 동문과의 화합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길 항상 바라겠습니다.

유마거사께서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달리 말해 중생이 행복하면 우리 역시 행복해 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고, 이러한 공덕이 다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삶의 큰 가르침입니다. 나눔과 봉사는 결국 스스로를 위한 베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 깊음 속에서 여타의 의료시설과 달리 인성을 중시하고 온정이

넘치는 의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종단은 물론 많은 불자님들은 종립 동국대학교의료원의 성장과 도약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자비와 포용의 가르침에 따라 교직원 모두가 고통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약왕보살의 화현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처럼 건강과 행복 안에서 신행 정진하시길 축원합니다. 동행(同行)의 창간을 거듭 축하하며, 동국대학교 의료원의 무궁한 발전과 모두에게 약사여래의 혜명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2014년)년 1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